

식민지시기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설립과 과학 교육*

전찬미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 | | |
|--------------------------------------|------------------------|
| I. 서론 | IV. 졸업생의 사회 진출과 교육 내용의 |
| II. 수물과의 설치와 초기 교육 과정(1912-1917) | 변화(1927-1938) |
| III. 학교 운영상의 문제와 과학 교육 실태(1918-1926) | V. 결론 |

I. 서론

1914년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를 비롯한 일단의 재조선 선교사들은 경신학교 임시대학부와 배재학당 임시대학 예과를 개편 확장하여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을 개교하였다.¹⁾ 이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의 고등 교육이 조선인의 “시세와 민도”에 비추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여²⁾ 선교사들의 대학 설립 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1917년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로 설립을 허가하

* 본 논문은 2010년 5월 29일 전국역사학대회 과학사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준비해 나가는 동안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던 임종태 교수님과 김근배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신 구만옥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통해 유익한 논평을 제시해 주셨던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과정 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이준식, “연희전문학교와 근대 학문의 수용 및 발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근대 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25-26쪽.

2) 김근배, “식민지 시기 과학기술자의 성장과 제약: 인도·중국·일본과 비교해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집 (1998), 163-165쪽.

였다.³⁾ 결국 선교사들은 그들의 본래 목표였던 대학 설립에는 실패하였지만 동시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관립전문학교와는 차별되는 교육 과정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들은 수학급물리과(數學及物理科)⁴⁾를 설치하고 조선인 학생들에게 고등 수준의 과학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는 식민지시기 조선 내에 고등 수준의 과학 교육 기관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획기적인 계획으로 이후 연희전문학교 수물과는 근대 조선인 과학기술 인력 배출의 중요한 경로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⁵⁾

학교 설립 이후 수물과가 운영되었던 1917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 내의 교육 체계를 관장했던 최고 권력 기구는 조선총독부였다. 그러므로 식민지시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교육 방침 및 관립학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⁶⁾ 조선총독부의 초기 교육 방침이 보통교육 및 실업교육 중심이었으며 이후 정책 변화에도 전문적인 과학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곧 역사가들의 연구 주제 선정에도 영향을 주어 실제 식민지시기 과학 교육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식민지시기 과학 교육을 다룬 소수의 연구들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로 특징지을 수 있는 식민 교육의 측면을 보여주거나⁷⁾, 과학 인력 양성을 위한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었다.⁸⁾ 그러나 식민지시기 근대 교육의 주요 제공자였던 서양인 선교사들의 과학 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⁹⁾

3) 馬越徹, 『韓國近代大學の成立と展開: 大學モデルの傳播研究』(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1995), 64-65쪽.

4) 학교 설립 초기에 발행되었던 『연희전문학교일람(延禧專門學校一覽)』에 학과의 정식 명칭은 수학급물리과로 표기되어 있으나 1924년 이후의 『연희전문학교일람』에는 모두 수물과로 표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수물과로 지칭하기로 한다.

5)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 인력의 출현』(문학과지성사, 2005), 143-145쪽.

6) 정재철, 『日帝의 對韓國 植民地 教育政策史』(一志社, 1985);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의 유형·발전과 실태”, 『한국교육연구』 제1집 (1980), 164-165쪽; 한용진, “일제 식민지 고등교육 정책과 경성제국대학의 위상”, 『교육문제연구』 8 (1996), 154-172쪽;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교육과학사, 2000); 박철휘, “일제강점기 인문중등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통해 본 식민교육의 차별성”, 『교육사회학연구』 13권 1호 (2003), 109-133쪽; 김한중,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日鮮共學 정책과 조선인의 반응” 『역사와 담론』 48권 (2007), 245-268쪽.

7) 정인경, “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설립과 운영”, 『한국과학사학회지』 16권 1호 (1995), 31-65쪽.

8) 김근배, 앞의 책.

그렇다면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 체계 속에서 서양인 선교사들의 과학 교육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조선총독부의 실업교육 중심 정책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었는가? 오늘날까지 연희전문학교 수물과가 식민지시기 유일의 조선인 과학 인력 양성 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희전문학교의 설립과 운영 과정 전반을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작업과 수물과 과학 교육의 실재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시기별로 각기 다른 행위자들이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교육 과정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우선 조선총독부는 국제 사회에 식민지 경영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서구 열강의 여론에 선교사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였다.¹⁰⁾ 또한 연희전문학교 역시 식민지 교육 체계에서 배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을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조선총독부와 선교사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총독부 측의 공식 문서와 함께 선교사들이 남긴 풍부한 기록을 통해 재구성 하고자 한다.¹¹⁾ 물론 학교의 운영이 시작된 이래로 조선인 학생들이 수물과의 교육 과정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연희전문학교가 제공했던 교육의 수요자로서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측에 다양한 요구를 하였으며 때로는 민족주의적 활동에 참여하여 조선

9)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시기에 이르기까지 서구 과학이 도입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서양인 선교사들의 과학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나일성, 『서양 과학의 도입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10) 윤경로, “일제 기독교 정책과 조선전도론(1)”, 『기독교사상』 제376호 (1990), 103-110쪽.

11) 당시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매년 정기 총회를 열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선교 사업 내역을 미국의 선교 본부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다수 제출하였다.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Korea Mission,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Seoul: Korea Mission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Report of Annual Meeting* (Seoul); 연희전문학교 설립과 운영 역시 재조선 선교사들이 주력하고 있던 교육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다수의 보고서 및 회의록, 개인 서신들이 보존되어 있다. Chosen Christian College,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Chosen Christine College” (1915); Chosen Christian College, *Chosen Christine College Bulletin*, Chosen Christian College, “Chosen Christian College Dean’s Annual Report”;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the Dean”; Chosen Christian College,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U. K. Yu. Dean.”

총독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수물과 교육 개편을 추동하였다.

교육 과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강조함에 따라 식민지시기 교육 상황에 대해 다룬 논의들이 대부분 총독부의 교육령 개정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고는 학교 운영상의 주요 국면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이 갖는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식민지 교육 체계를 보다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했던 조선총독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피교육자였던 조선인 학생들의 시기별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수물과 과학 교육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들의 능동성도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공백 상태로 남아있던 식민지시기 선교사들의 과학 교육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에서 서구 근대 과학이 도입되는 주요한 경로 중 하나로 연희전문학교 수물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912년 일부 선교사들이 서울에 최초의 기독교계 대학을 설립하려는 구상을 시작했을 때부터 조선총독부가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을 허가했던 1917년까지 학교의 설립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과 연희전문학교 설립자들의 교육관, 미국 뉴욕 선교본부¹²⁾의 선교 사업 방침이 수물과의 설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설립 이후 1927년 재인가 협상을 하기 직전까지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 변화를 설명하고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희전문학교 교수진과 조선인 학생들의 구체적인 대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927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재인가를 받으면서 학교의 운영이 안정화되고 그 발전이 정점에 이르는 1937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 수물과 교육 과정의 개편은 학생과 교수진들의 조선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특히 당시 졸업생의 진로 선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조선 내 산업 상황을 함께 검토한다.

12) 이하 선교본부로 칭함.

II. 수물과의 설치와 초기 교육 과정(1912-1917)

1910년대 조선에 존재하고 있던 학교의 대다수는 총독부 혹은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¹³⁾ 이들은 각기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기독교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 근대 교육의 제공에 주력하였다.¹⁴⁾ 기독교의 영향력이 조선 사회에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던 총독부 측과 독자적인 기독교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던 선교사 측은 곧 고등 교육 기관의 설립과 종교 교육의 자유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켰다. 연희전문학교의 설립과 인가 과정을 살펴볼 이 절에서는 연희전문학교 설립자와 뉴욕 선교본부¹⁵⁾, 그리고 총독부 관료 사이의 상호 작용이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재조선 선교사들이 기독교계 고등 교육 기관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06년 ‘연합교육사업단’을 발족하고 교과 간 연합 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면서부터였다.¹⁶⁾ 연합 대학 설립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언더우드는 1912년 미국 뉴욕 선교본부의 브라운(A. J. Brown)에게 쓴 편지에서 총독부 주도로 설립되는 관립 학교들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기독교계 학교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¹⁷⁾ 그가 보기에 우선 고등 교육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대학을 설립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조선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설립된 대학은 교육 수요자의 기호에 맞도록 비기독교인들을 수용하고 복음 전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과학 교육을 비롯한 세속 교육 역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한말·일제치하의 사학사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86쪽.

14) 이진구, “일제의 종교/교육 정책과 종교자유의 문제: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8권 (2005), 206쪽.

15) 1810년 미국 뉴욕에서 결성된 선교본부(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는 조선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업무를 감독, 지휘하던 선교 활동 기구로서, 각지의 주요 선교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진,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19-21쪽.

16) 연합 대학 설립 문제에 대한 선교사들의 견해는 당시 연합 교육 사업단이 선교 본부에 제출했던 연례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The Minute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13), pp. 1-12.

17) 언더우드가 선교본부 해외 전도국 총무 브라운(A. J. Brown)에게 보낸 편지 (1912. 12. 23).

이에 1912년 말 선교본부가 서울에 연합 대학을 설립하도록 결정하면서¹⁸⁾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몇몇 선교사들이 서울에 본격적인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특히 당시 숭실학당에서 과학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루퍼스(W. C. Rufus)와 베커(A. L. Becker)가 학교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본 교육 방침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⁹⁾ 이들은 문과(Literary Department), 상과(Commerce Department), 농과(Agricultural Department), 수물과(Science Department), 신학과(Bible Department)의 종합 대학 체계를 구상하고²⁰⁾ 1914년 조선기독교대학을 개교하였는데, 이것이 연희전문학교의 전신이다. 조선기독교대학 개교와 함께 설립자들은 이후 제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총독부의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등보통학교를 조선인을 위한 종결 교육 기관으로 설정하고 대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에서 대학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던 조선총독부는²¹⁾ 선교사들의 고등 교육 기관 설립을 경계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기독교계 사학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사립학교규칙(改正私立學校規則)」을 1915년에 반포하였다.

제3조 2항 사립전문학교의 설치: 전문교육을 하려는 사립학교는 기초가 튼튼하고 상당한 설비와 교원을 갖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를 설치하는 때는 먼저 학교를 유지할 만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을 조직하고 이 재단법인으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2항 교과과정: 보통교육, 실업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은 보통학교규칙, 고등보통학교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또는 전문학교규칙에 규정한 교과 과정에 준하여 이를 정하고, 이 밖의 학과목은 일체 부과할 수 없다.

부칙: 1915년 4월 1일 현재로 이미 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립 전문학교는 10개년 동안 이 규정의 적용을 유예한다. 신설학교에 있어서는 이것을 적용한다.²²⁾

조선총독부가 학교를 유지할 만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의 설치를 요구한 것은

18) *The Minute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13), pp. 2-3.

19) 같은 책, 127-148쪽.

20) 백낙준, “꿈과 비전: 연희학원 창립 50주년에 부쳐”, 『백낙준전집 3권』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16쪽.

21) 오세원,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 정책의 변화 연구”, 『日本語文學』 제27집 (2005), 273-277쪽.

22) 「조선총독부령 제24호(私立學校規則中改正)」, 『朝鮮總督府官報』 (1915. 3. 24).

당시 전문학교 인가를 희망하던 대부분의 기독교계 학교들의 재정 부족이 심각했으며 이를 선교사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²³⁾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불량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명목 하에 재정난을 겪고 있던 대부분의 기독교계 학교 인가를 거부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6조 2항을 통해 사립학교의 교육 과정 결정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히 “성서연구와 같은 종교 교과와 개설과 운영은 제국의 학정과 맞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학과 과정에 종교 교과를 포함시키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한 기독교 전파를 막으려고 하였다.²⁴⁾

이에 조선기독교대학은 그들 스스로 총독부가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1915년 4월 총독부에 ‘대학’의 자격으로 인가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지원서에는 예과 2년, 본과 4년의 종합 대학 구상과 성서 교육을 포함하는 기독교계 사학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중에서 수물과의 경우 조선 유일의 고등 수준의 과학 교육 기관이라는 이름하에 ‘실용적 과학 지식 습득을 통한 조선인 지도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예과 및 본과 1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물리학, 화학, 수학 등의 과학 교육을 제공하며 본과 2년생의 경우에는 문과나 상과에서 개설된 교양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과 3, 4학년생에게는 측량, 건축학, 전기공학, 화공학과 같은 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²⁵⁾

이 지원서에 대해 당시 조선 내 학교 설립의 인가를 담당하고 있던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측은 「전문학교규칙(專門學校規則)」²⁶⁾과 「개정사립학교규칙」에

23) 朝鮮總督府內務部學務局, “朝鮮教育要覽”,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朝鮮編 1』 (東京: 龍溪書舍, 1991), 60-62쪽.

24) 「조선총독부령 제 16호(訓令)」, 『朝鮮總督府官報』 (1915. 3. 24). 총독부는 「사립학교규칙」과 동시에 반포한 「훈령(訓令)」에 “학술기예의 수양과 국가유용의 지능덕성 함양을 위한 교과만을 인정한다”는 총독부의 기본 방침과 함께 구체적인 교육 과정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25)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Registrar of Chosen Christian College” (1915. 4. 21).

26) 연희전문학교 설립 인가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전문학교설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위치 3. 학칙 4. 개교연월일 5. 교지, 교사, 부속사, 실습지의 평면도 및 그 소유자 6. 1년의 수지예산 7. 유지방법 8. 학교장 및 교원의 성명·담당 교과목 및 이력서. 제 8 조 교원은 1학급 1인 이상 전임자를 두어야 한다. 「조선총독부령 제 26호(專門學校規則)」, 『朝鮮總督府官報』 (1915. 3. 24).

근거하여 조선기독교대학의 인가를 불허하였다. 이들은 인가 결정을 보류하고 선교사들에게 학교의 성격을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로 재규정하며 각 분과를 총독부의 기본 교육 방침에 맞게 재편성 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본과 4년제로 편성되어 있는 각 분과를 3년제로 편성하고 예과는 폐지할 것, 신학과와 고등 수준의 과학 교육을 위한 수물과를 폐지하는 대신 총독부 교육 방침에 근거한 실업 교육을 위한 응용과학과를 개설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학무국은 교과목 편성과 교원의 임용은 무조건 총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서 교육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²⁷⁾

당시 내무부장 우사미 가츠오(宇佐美勝夫)는 연희전문학교에서 성서 교육이 왜 전면금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교 교과에 성경이 선택 과목으로라도 허용될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 다른 모든 종교 기관에도 유사한 특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곳에서 하나의 큰 학교 대신에 작고 부실한 수많은 학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법령의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택 과목으로도 허가될 수 없다.²⁸⁾

그는 조선기독교대학에서의 성서 교육을 인정한다면 다른 종교계통 학교에도 비슷한 특권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총독부가 인정해주기 시작한다면 안정된 식민지 교육 체계 확립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차후 종교 교육 정책을 두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였다.

이에 뉴욕 선교본부는 모든 학과의 교육 과정 편성 결정권을 총독부에 넘겨주는 대신 종교 교육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총독부에 요구했다.²⁹⁾ 또한 1916년 1월 선교본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재조선 선교사들에게 “총독부의 동화 정책과 교육 방침을 이해하고 총독부에 충실하고 진심으로 협력하는 노선을 택하”³⁰⁾도록

27) *Fourth Meeting of the Board of Managers of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1916. 3. 27), p.2.

28) “Report of Senate Committee on Interview with Mr. Usami Relative to Revised Ordinance for Private Schools” (1916. 2. 4), pp. 1-2. 원문이 쓰인 것은 1916년이지만 이는 연희전문학교 설립 인가 지원서 제출 이후의 회합에서 우사미의 발언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인터뷰는 1915년 10월에 있었다.

29)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Registrar of Chosen Christian College” (1915. 12. 28), pp. 7-8.

30) 브라운이 조선 선교부에 보낸 편지(1916. 2. 7).

촉구하였으며 당시 외사국장이었던 고마쓰 미도리(小松綠)에게도 선교본부 및 재조선 선교사들이 총독부의 식민 통치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권 행사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³¹⁾ 선교본부는 심지어 학교 설립자들의 뜻과는 달리 수물과 교육을 포기할 수 있으니 그 대신 종교 교육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총독부의 명령과 선교본부의 반응을 수궁할 수 없었던 조선기독교대학 측은 학무국 관료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무부 산하의 외사국 관료들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외사국은 총독부가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 조율을 위해 설치한 부서로 통감부 시절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선교사들을 회유하기 위해 임명한 친미적인 성향의 관료들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³²⁾ 따라서 조선기독교대학 설립자들은 외사국장이었던 고마쓰 미도리를 통해 학무국 관료들과의 협상의 통로를 마련하였다.

1916년 3월, 고마쓰 미도리의 중재로 내무부장 우사미 가츠오가 주관하고 학무국장 세키야 테사부로(關屋貞三郎), 미국 선교 본부 총무 스피어(R. E. Speer),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에비슨(O. R. Avison), 조선기독교대학 학감 베커 등이 참여한 회합이 열렸다. 이 회합을 통해서 종교 교육 및 각 과의 교육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사안이 합의되었다. 첫째, 처음 선교사들이 구상했던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로서 인가를 받고 식민지 교육 체계에 편입한다. 둘째, 선교사 측이 제안한 2년제 예과의 편성은 허가하지 않는다. 셋째, 조선총독부 측이 권고했던 3년제 대신 4년제의 학제로 편성한다.³³⁾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협의 사항과 함께 기독교계 학교 운영에 가장 중요했던 종교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회합에서 결의된 사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1916년 7월에 작성된 연희전문학교 등록 지원서에 드러난 수물과의 교육 과정은 기초적인 이론을 다루는 과목들부터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 교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고등 수준의 과목을 포함하고 있었다.³⁴⁾ 1학년은 수학과 물리학, 화학이 전체 시수의 약 40%를, 2학년은

31) 브라운이 고마쓰에게 보낸 편지(1916. 2. 7).

32) 윤경로, 앞의 글, 103-113쪽.

33) Chosen Christian College, "Provisional President's Report to the Spring Meeting of the Board of Managers of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1916. 3. 27), pp. 1-4.

34) Chosen Christian College,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Chosen Christian College" (1916. 7. 15), pp. 3-4.

약 52%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3학년과 4학년은 수학과 역학이 약 28%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약 31%의 수업 시수가 측량, 전기 공학 등의 기술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생물학 수업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특이한데, 이는 설립 당시 농과의 설립을 따로 구상하면서 생물학 관련 수업은 모두 농과에 편성했기 때문이었다.³⁵⁾

그렇다면 당시 총독부가 고등 수준의 과학 교육을 배제하고 실업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방침에 따라 처음부터 수물과의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연희전문학교 수물과가 설립되어 과학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수물과와 응용화학과의 교과 편성을 담당했던 루퍼스, 베커, 밀러(Edward H. Miller)가 연희전문학교 설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과 함께 조선총독부 측이 종교 교육의 금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과학 교육에 대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종교 교육 금지로 인한 선교사들의 반발을 약화시키려고 하였으며 과학 교육에 열의를 갖고 있던 세 사람이 이에 부응함으로써 과학 교육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복음전도보다 과학 교사로서 과학 교육에 더욱 큰 가치를 두고 있었으며 특히 고등 수준의 과학 교육을 중시하였다. 이는 동시대 선교사들 대부분이 단순한 수공기술 교육에 관심을 갖거나³⁶⁾ 성서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던 것에 비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과학 교사로서 인간의 지적 능력에 과학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과학 교육이 조선의 당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조선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핵심적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세 사람이 보기에 과학 교육은 “진정한 과학적 정신”³⁷⁾을 키우는 데, 즉 어떠한 문제를 접하든지 간에 논리력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시켜주는 데 있어서 좋은 방편이었다.³⁸⁾

이러한 인식은 당시 조선의 교육 제도에 관한 이들의 비판적 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우선 이들은 단순히 유교 경전 공부에만 매달리는 조선인들의 교육 전통에 비판을 가하고 그 대신 학생들에게 실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

35) 같은 글, p.18.

36) 김근배, 앞의 책, 123-140쪽.

37) A. L. Becker, “Report of Registrar for 1916 - Department of Physics” (1916. 12. 31), pp. 13-14.

38) W. C. Rufus, “Report of Registrar for 1916 - Department of Mathematics” (1916. 12. 31), pp. 9-11.

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⁹⁾ 루퍼스에 따르면 조선인 학생들은 기본적인 수학 능력 및 사고 능력이 매우 부족한데, 이는 개개인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각 급 학교가 여전히 “동양적인 교육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그는 수물과에서의 과학 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⁰⁾

고등 수준의 기술 교육 문제는 학교 설립 당시 조선의 현실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베커가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장으로서 노스(F. M. North)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조선 내 산업 현장 대부분이 소수의 일본인 관리자가 다수의 조선인의 업무를 관장, 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기계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이들이 기술적 능력, 정신적 능력의 계발 기회도 없이 단순 노동에만 머무르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인들에게 기초적인 기술 능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연희전문학교의 관할 하에 독자적인 공과를 세우고 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학, 토목학 등의 교과목을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다.⁴¹⁾ 베커에게 기술 능력 계발은 곧 조선의 산업 현장에서 관리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선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방편 중 하나였던 것이다. 비록 공과의 설립은 선교본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실현될 수 없었지만 수물과 교육 과정에 제도, 측량, 건축학 등의 교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이 제시한 교육 과정에는 성서 교육이 완전히 배제되었는데, 이를 용인한 사실은 세 사람이 아무리 과학 교육에 대한 열의가 컸다 해도 그들이 공식적으로 선교사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교사에게는 기독교의 전파가 가장 중요한 의무이므로 과학 교육을 위해 종교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⁴²⁾ 그러나 이들은 선교 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육의 기회와 종교 교육의 기회를 맞바꾸고 그 대신 주일 학교 등의 비공식적 활동을 통해 연희전문학교가 기독교계 학교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도록 하는 미봉책을 제시했다.⁴³⁾

39) Chosen Christian College, “Facts about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1918. 11), p.4.

40) W. C. Rufus, 앞의 글, pp. 9-11.

41) 베커가 선교본부 교육국장이었던 노스에게 보낸 서신(1916. 11. 11).

42) 선교본부 소속 선교사 해리스가 루퍼스에게 보낸 편지(1916. 4. 29).

43) 베커가 의사국장 고마쓰에게 보낸 편지(1915. 12. 18).

연희전문학교 설립자들의 제안을 선교본부 측 역시 끝내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각종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은 선교 활동비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연희전문학교 설립을 위해 투입된 상태에서 총독부가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한 종교 교육의 자유를 고집하다가 학교 설립을 무산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연희전문학교에서의 성서 교육을 고집할 경우 총독부와 맺고 있던 우호적인 관계를 해칠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설혹 연희전문학교에서 성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총독부가 기독교계 학교에 더욱 심한 간섭을 시작한다면 교육 선교 사업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었다.⁴⁴⁾ 결국 선교본부는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교를 당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종교 교육을 희생하더라도 학교의 설립인가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연희전문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⁴⁵⁾

1915년에서 1917년 사이에 연희전문학교 인가를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은 수물과 설치와 교육 과정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에서 고등 수준의 과학 교육이 시작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총독부 관료들이 종교 교육의 금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교육 정책에 반하는 고등 과학 교육의 자유를 허용해준 것이었다. 또한 수물과의 구체적인 교육 과정 결정에는 선교사들의 과학 교육관과 조선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고등 수준의 과학 교육은 전문적인 과학 교사로서 과학이라는 학문이 합리적인 지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그들의 개인적 믿음 때문에 실행되었으며 조선 사회가 당장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던 이들의 교육 방침은 고등 수준의 기술 교육을 제공하려는 밑바탕이 되었다.

Ⅲ. 학교 운영상의 문제와 과학 교육 실태(1918-1926)

1917년 연희전문학교는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나갔지만 조선총독부가 정한 까다로운 전임 교원 규정과 선교 본부의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각 과에

44) 선교본부 교육국장 노스가 연희전문학교에 보낸 편지(1916. 3. 18).

45) 선교본부 교육국장 노스가 베커에게 보낸 편지(1916. 6. 23).

서의 교육이 실현되기는커녕 학교의 존재 자체가 위험한 수준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3·1 운동 직후 활발해진 조선인 학생들의 제도 개선 요구와 민족주의적 활동,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침 전환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교육 방침에 따라 종교 교육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총독부는 기독교계 사학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관학-사학의 이중적 구조를 이용한 차별책을 강화했고 연희전문학교의 교육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절에서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드러난 연희전문학교 운영상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수진들과 학생들의 대내외적 노력이 수물과의 교육 내용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연희전문학교 수물과는 1917년 당시 4년제로 편성, 운영을 시작했지만 전임 교원을 두 명밖에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개 학년만 유지 가능했으며, 응용화학과의 경우에는 아예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⁴⁶⁾ 그러므로 실제 1922년까지 수물과가 졸업생을 배출했던 것은 1919년의 단 한 번이었으며, 그 수도 모두 4명밖에 되지 않았다.⁴⁷⁾ 이는 연희전문학교 설립과 함께 개설되었던 문과나 상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며, 결국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과행 운영의 문제는 학교 전체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1920년 2월 연희전문학교는 학생 및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학교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논의하였는데, 이는 학교 운영 문제에 학생들이 직접 관여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다. 이들은 전문학교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예과 체제를 추가하고 각 과의 교육 과정을 개선한다는 사안을 비롯하여 학교 운영의 제반 상황들을 개선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어와 영어 외에 조선어 강의를 개설하고 조선어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조선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학습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이 회의는 선교사들이 실질적인 학교 존립을 위해 조선인 교수진 및 운영진을 확보하고 조선인의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⁴⁸⁾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웠으며 결국 회의가 있는 지

46) 김근배, 앞의 책, 226-228쪽.

47) *Report of Chosen Christian College 1923-1924* (1924), p.5.

48) *Deans Report to the Board of Managers Chosen Christian College* (1920. 2. 21).

세 달 만에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은 단체로 동맹휴학을 벌이게 되었다. 이 사건을 다룬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전문학교 교육 과정의 개설과 전임 교수의 확보, 기숙사의 확충을 요구하며 5월 30일부터 동맹 휴학을 벌였는데, 이는 이미 교수진들 역시 동감한 것으로 총독부의 허가 없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였다.⁴⁹⁾ 이미 교내 회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이며 그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단체 행동을 벌였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서 높아졌던 교육 욕구와 조선총독부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교육 과정 중에 일본어 교육 시간이 너무 많다는 점을 가장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어 교육의 폐지와 조선어 교육을 요구함으로써 ‘조선본위교육’의 지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⁵⁰⁾ 이러한 민족 교육에 대한 인식은 사실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생겨난 것으로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의 동맹 휴학은 이러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교육 정책이 3·1 운동을 전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조선인들의 교육열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改正朝鮮敎育令)」을 반포하였다.⁵¹⁾ 이 법령은 총독부의 ‘내지연장주의’ 방침에 따라 조선의 교육 제도를 일본의 제도와 동일하게 개혁한다는 것을 그 기본 원칙으로 삼고,⁵²⁾ 조선과 일본 학제의 통일, 일본인과 조선인 공학(共學), 종교 교육의 자유와 사학의 자율권 확대를 보장하였다.⁵³⁾ 따라서 조선 내의 기독교계 학교에서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의 교육 내용을 관장하기 위해 학무국 내에 종교과가 신설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종교과 관료로 기독교계 관련 인물을 배치하여 특히 선교사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삼았는데, 1924년부터는 종교과장에 유만겸(兪萬兼)을 임명하였다.⁵⁴⁾ 비슷한 시기 학교 운영을 위한 조선인 협력자의 필요성을 절

49) 「延禧校學生盟休」, 『동아일보』 (1920. 6. 5).

50) 조동걸, 『韓國民族主義의 발전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94), 232-236쪽.

51) 「칙령 제19호(改正朝鮮敎育令)」, 『朝鮮總督府官報』 (1922. 2. 6).

52) 전상숙, “1920년대 사이토 총독의 조선통치관과 ‘내지연장주의’”, 『담론 201』 제11권 2호 (2008), 5-41쪽.

53) 김한중,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日鮮共學 정책과 조선인의 반응”, 『역사와 담론』 제48권 (2007), 245-270쪽.

감하고 있었던 연희전문학교 이사진은 1923년 학교의 운영진을 새로이 기용하는 과정에서 학감으로 유억겸(兪億兼)을 선출하였는데 그는 바로 유만겸의 친동생이었다.⁵⁵⁾ 이로써 연희전문학교는 다른 어떤 사립학교보다도 조선총독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 편성이나 교수 임용 등의 문제에서 보다 많은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수물과 교수진들은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 과학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 이전 교육 과정에서 중시했던 영어 과목의 시수를 대폭 줄이고 물리학 및 화학의 시수를 증가시켰다. 영어 과목의 시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조선총독부 종교과의 목인 하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조선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과학 수업은 조선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총독부가 공식적으로 조선어 사용을 허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기 중 치러지는 공식적인 시험은 영어와 일본어를 사용해야만 했다.⁵⁶⁾

물리학은 역학, 열 및 음향학, 전자기학, 광학, 동역학 등으로 세분화되어 배정되었고 각각 강의와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교수진들이 제시한 물리학 과목의 교육 목표는 뉴턴 역학부터 양자 이론과 상대성 원리에 이르기까지 당시 구미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다루는 것과 동일한 “최신의 물리학 이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선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각각의 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예증 실험을 위주로 구성된 실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졸업생들이 물리학 연구를 위한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⁵⁷⁾ 화학 역시 기존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던 각 과목에 실험 시간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학생들의 실험 능력 배양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⁵⁸⁾ 성서 과목이 필

54) 유만겸은 유길준의 아들로 1889년 출생하여 1917년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법과를 졸업하고 1919년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농무과에서 관료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인물이었다. 그가 총독부 학무국 소속 관료로 재직했던 시기는 1924년부터 1933년까지였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25).

55) 유억겸은 유길준의 아들이자 유만겸의 동생으로 1909년 계산학교(桂山學校)를 거쳐 일본 도시샤중학교(同志社中學校)와 교토 관립 제3고등학교에서 수학했다. 1920년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에서 법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U. K. Yu,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U. K. Yu. Dean” (1928).

56) 1931년 발행된 연희전문학교 보고서에는 각 학과별 역대 교육 과정 및 각 과목의 교육 내용 및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Chosen Christian College, “Chosen Christian College Bulletin” (1931), p.74.

57) 같은 글, pp. 76-77.

58) 같은 글, pp. 77-78.

	1924	1925	1926	1927
1학년	31	26	28	27
2학년	-	16	12	11
3학년	9	-	11	7
4학년	3	7	-	11
졸업생	-	3	7	-

〈표 1〉 1924년-1927년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재학생 분포

[출전: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Chosen Christian College 1924-1925*; *1925-1926*; *1926-1927*;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U. K. Yu. Dean 1927-1928*.]

수 과목으로 채택된 것도 중요한 변화였는데, 이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새로운 교육령을 통해 종교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였다.

이렇듯 조선총독부 측이 종교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기독교계 사학의 영향력을 견제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급선무였으며 결국 관립학교와 사립학교 졸업생들의 학력을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관립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이 상위 교육 기관인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데에는 학력 문제가 없었지만 사립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이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는 학력 검정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표면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육 과정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학력 검정 시험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제시하는 교육 방침을 사립학교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⁵⁹⁾

이 같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인해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에서의 과학 교육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났다. 첫째는 신입생들의 수준이 전문학교 교육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이는 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 제한과 수업의 낮은 질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1924년 이후 4년 동안의 재학생 분포를 살펴보면(<표 1> 참조)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 과정에 진급하는 학생의 비율이 50% 정도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학년 진급생도 다소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지만 2학년 진급만큼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신입생들이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이 힘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각 교과와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학기

59) 김경미, “일제하 사립중등학교의 위계적 배치”, 『한국교육사학』 26권 2호 (2004), 39-41쪽.

말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⁶⁰⁾ 연희전문학교는 신입생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의 품행방정 한 고등보통학교 및 동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명시했다.⁶¹⁾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사립고등보통학교 졸업생들이었고, 이들이 배운 수학과 과학의 내용이 신입생들의 최대 학업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고등보통학교의 학습 수준 정도로는 연희전문학교 측에서 마련한 교육 내용을 소화할 수 없었다. 이는 총독부가 박물과 물리, 화학 과목의 경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이를 전혀 교수하지 않거나 선택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대부분의 사립고등보통학교가 학력 검정 시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학 교육을 포기하면서 발생한 문제였다.⁶²⁾

이중적인 학제로 인해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의 경우 1년제인 사범과의 교육 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보통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던 반면 연희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는 1927년까지 보통학교 교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총독부는 연희전문학교 졸업생의 자격을 연희전문 이학사로 인정하는 것 외에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았다.⁶³⁾ 그러므로 당시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졸업생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진로는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북간도, 연해주 등지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것이 전부였다.⁶⁴⁾ 이와 같은 정책은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에게 「개정조선교육령」으로 종교 교육까지 허락하게 된 총독부가 조선의 교육 체계 내에서 기독교계 사학의 영향력 증가를 견제할 수 있는 교묘한 수단이었다. 사립학교 졸업생의 학력을 관립학교 졸업생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조선인 교육 수요자들이 연희전문학교보다 관립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⁶⁵⁾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육령의 반포가 조선인 학생들이 당면한 교육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주지는 않았으며, 이는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더욱 심화시켰다. 실제로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1923년 2월 9일 조선학생회 창립총회가

60) U. K. Yu,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U. K. Yu. Dean” (1925), p.13.

61) 『사립연희전문학교학칙』 (1924).

62) 박철희, “일제강점기 인문중등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통해 본 식민교육의 차별성”, 『교육사회학연구』 13권 1호 (2003), 113쪽.

63) U. K. Yu, “Chosen Christine College Report of U. K. Yu, Dean” (1927), p.19.

64) 『연희동문회보』 (1934), 46-54쪽.

65) 박철희, 앞의 글, 117-119쪽; 정선이,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 양상과 특성”, 『사회와 역사』 제77집 (2008), 21-25쪽.

개최되면서 서울 시내의 각종 전문학교 및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식민지 교육 개선과 자주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운동을 활발히 벌이기 시작하였다. 결국 학교 측은 1926년 6월 10일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에게 퇴학 및 정학 조치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총독부가 1927년 재인가를 구실삼아 연희전문학교 교수진들에게 학생 활동 규제를 강화할 것을 강요했던 결과였다.⁶⁶⁾

연희전문학교의 설립 이후 조선총독부의 까다로운 사립학교 규제 정책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때문에 교수진들과 학생들의 협의가 벌어지고 동맹휴학과 같은 단체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점차 민감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전반적인 교육 방침을 변화시키고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일정 부분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조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연희전문학교와 조선총독부 측은 유례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과학 교육의 내실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수물과는 조선총독부의 관학-사학 위계 정책으로 인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 확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점차 민족주의적 단체 활동에 열중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조선총독부는 학교 측에 압력을 가하여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결국 학교의 존립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연희전문학교 교수진들은 학생들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IV. 졸업생의 사회 진출과 교육 내용의 변화(1927-1938)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학사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그 동안의 교육성과가 가시화하면서 수물과 교수진들은 학과 자체의 발전을 위한 내부적 혁신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교육 과정의 개편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이 시기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교육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절에서는 1930년대 전후의 연희전문학교

66) U. K. Yu, "Report of Dean to Field Board of Managers" (1926. 9. 24), p.2.

수물과 교육 과정의 변천을 통해 조선인 학생과 수물과 교수들의 조선 사회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식민지 시기 과학 교육의 특성을 결정지었던 식민지 조선의 산업 상황을 간단히 정리할 것이다.

연희전문학교는 1927년 재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선총독부의 관학-사학 위계에 따른 차별 정책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부여하는 졸업생 자격은 여전히 전과 다를 바가 없었고 조선인 학생들의 동맹 휴학은 연희전문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하였다. 1927년에 72건으로 집계되었던 동맹 휴학은 다음 해 83건, 그 다음 해에도 78건에 이르렀으며 1930년에는 107건으로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 정책의 차별성을 규탄하고 민족 교육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⁶⁷⁾ 이러한 움직임이 곧 민족주의적 운동과 직결됨을 인식한 조선총독부 측은 자신들의 교육 방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조선인들의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조선총독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연희전문학교의 존재에 주목하게 되었다.

연희전문학교의 재인가를 허락하면서 조선총독부는 수물과 졸업생들에게 사립 고등보통학교 교원 자격을 부여하였고 1928년에는 관립보통학교 교원 자격, 1930년에는 관립고등보통학교의 교원 자격을 보장하였다. 이후 1932년에는 연희전문학교 졸업생들이 제국대학에 입학하거나 시험 전형을 통해 보통 문관에 임용되는 일도 가능해졌으며 다음 해인 1933년에는 보통 문관 무시험 임용까지 허용되어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졸업생은 전문학교 졸업생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모든 특전을 보장받게 되었다.⁶⁸⁾ 조선총독부는 당시 존재하고 있던 많은 사립학교들 중에서 연희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 이러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선인 학생들의 반발을 일부 무마하면서도 전체적인 관학-사학의 위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학력 인정 결과 수물과 졸업생들의 진로 결정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다. 관립보통학교 교원 자격의 취득이 인정되었던 192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교원으로의 취업이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한 교원 진출이 총 졸업생의 50%를 넘었으며 이 해에는 “연희전문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하거나 “가업”을 잇는 등 실질적인 진로 미결정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졸업생들의 사회 진

67) 손인수, 앞의 책, 209-221쪽.

68) U. K. Yu,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U. K. Yu, Dean” (1933), p.16.

Group A		Group B	
3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
천문학 3		토목공학 3	토목공학 3
진공관 현상 2 분광학 2	상대성 이론 1	건축학 2	건축학 2
	이론화학 2	제도 2	제도 1
	응용함수론 2	측량 1	측량 1

〈표 2〉 1935년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선택과목
[출전: Chosen Christine College Bulletin (1937. 9).]

출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목격한 수물과 교수진들은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능력들을 함양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보다 본격적으로 연구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감지하기 시작하였다. 즉 교수들은 연구 인력 양성과 취업 인력 양성은 분명 다른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 과정의 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⁶⁹⁾

그 결과 1935년에는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수물과 교수진들의 주도 하에 새로운 교육 과정이 제시되었다.⁷⁰⁾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 필수 과목과 이외에 3, 4학년생이 수강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분리,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선택 과목의 개설은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의 진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그에 따라 선택 과목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수학, 물리학, 화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특히 유학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물리학, 분광학, 상대성 이론 등에 관한 당시 학계의 최신 이론을 논의하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 방식이 도입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기술 교육의 심화 과정으로 토목과 측량, 건축학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필수 과목에 이미 편성되어 있던 동명의 과목들과 수업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실습 시간을 제공했다(<표 2> 참조).⁷¹⁾ 실제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뀐 이후 고학년들 사

69) Chosen Christian College,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the Dean" (1936. 2) p.30.

70) *Chosen Christian College Bulletin* (1937. 9), pp. 82-83.

71) 『연희전문학교일람』 (1937);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the Dean* (1938); 『연희전문학교

이에서 기술 교육 중심의 선택 과목들은 큰 인기를 끌었으며 교수들 역시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물과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며 중도 하차하는 학생의 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⁷²⁾

수물과 교육 내용이 위와 같이 변화하고 이것이 실행되는 데는 당시 조선 사회에 불고 있던 ‘광산 특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931년에서 1936년 사이 일본 정부는 군수 산업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 예산을 공업 및 운수 산업에 대폭 투자하였다. 이는 곧 일본 내에서 제철소의 확대, 병참의 건설, 각종 화학공장의 건설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의 지하자원이 중요한 공업 원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동안 조선의 광업생산액은 5.9배 증가하였으며 광업의 급속한 발전은 이 부문의 노동자 수를 크게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자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게 했다.⁷³⁾ 특히 조선인 광업가의 등장과 이들의 활발한 활동⁷⁴⁾은 광업 관련 분야에서의 취업 기회가 증가함을 뜻했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1935년의 교육 개정 이후 수물과에서의 기술 교육은 3, 4학년의 선택 과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 수강자들에게도 확대되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실제 1, 2학년에 편성되어 있던 지질학, 광물학, 측량학 등은 종래 1회 45분 수업이던 것을 90분에서 두 시간으로 늘려 매주 10여 시간씩 수업을 진행하였다. 3학년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3 시간씩 과외 수업의 형태로 광상학까지 수강할 수 있었다. 4학년생들은 독일어 수업 대신 학교 근처에서 실지측량 실습을 하고 “방과 후에도 이학관 지하실의 공업 분석실에 들어가서 분석법과 각 지방의 광물을 연구하다가 전등불이 들어올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광업 관련 기술 과목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⁷⁵⁾

이러한 광물학, 측량 등과 같은 과목들이 연희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 확실한 취업을 보장해주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조선일보에서는 「명량한 就職凱歌 - 75명 영재 사회입문은 O.K.」라는 제목으로 “근년에 와서는 각별하게 교운이 발전하고 있는 연전의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 중에서도 수물과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이

일람』 (1940).

72) Chosen Christian College,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the Dean” (1937), p.16.

73) 전석담, 『조선근대 사회경제사: 19세기 후반기~일제 통치 말기의 조선사회 경제사』 (자작아카데미, 1998), 256-318쪽.

74) 김근배, 앞의 책, 308-331쪽.

75) 연희전문학교 삼과연합출판부, 『연전타임스』 (1935. 9. 1).

회 수	졸업 년도	취업	교원	유학	연희전 문학교 교직원	가업	미상	총 인원
1	1919	—	—	4	—	—	—	4
6	1924			2	1			3
7	1925	1		1	—	1		3
8	1926	—	2	1	3	—	—	6
10	1928	2	7	3	—			12
11	1929	6	4	—	1		1	12
12	1930	3	4	1	—	1	—	9
13	1931	1	2	1	1	—		5
14	1932	2	2	4	1	2	1	12
15	1933	3	1	1	—	—	—	5
16	1934	2	4	2				8
17	1935	6	4	3			1	14
18	1936	8	2	—			—	10
19	1937	6	5	1			1	13
20	1938	12	4	1			—	17
21	1939	7	5	2			1	15
계		59	46	27	7	4	5	148

〈표 3〉 1919년-1939년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졸업생 현황

[출전: 『연희전문학교동년록』 (1919-1939).]

미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실제 1934년까지 취업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에 비해 1936년을 기준으로 취업 인구의 비중이 20%에서 50%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⁶⁾ 1920년대의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졸업생들이 보통 문관으로 임용되거나 철도국에 취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특히 광업 관련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반면 연구 인력 양성이라는 교수들의 또 다른 목표는 학생들의 시대적 요구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실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최신의 물리 과학 이론을 제공하는 선택 과목의 경우 각 학년에서 이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편향에 대해 교수진들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 같은 편중 현상은 졸업생 진로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35

76) “명량한 就職凱歌 - 75명영재사회입문은 O.K”, 『조선일보』 (1936.1.3)

년 개정된 교과 과정이 적용된 이후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참조)

1935년의 개정 이후 약 4년간 매년 연희전문학교는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과 신입생 명단이 신문에 공개될 정도로 조선 사회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학교가 되었다.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뿐만 아니라 만주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신입학 지원을 해오는 경우도 생겼다.⁷⁷⁾ 이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수물과의 기술 교육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결국 연희전문학교 수물과는 당시의 산업 상황과 재학생들의 취업 욕구가 맞물려 고등 기술 교육을 활발히 전개해나가면서 조선인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중추적인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V. 결론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졸업생 자격의 확대와 선택 과정의 개설로 인해 수물과의 과학 교육은 안정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38년 총독부가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고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이라는 교육 방침에 따라 각 학교들의 자발적 개편을 촉구하면서 연희전문학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⁷⁸⁾ 이 법령에 의해 수물과의 명칭은 이과로 변경되었으며 신입생 정원은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신입생 정원 증가는 수물과 교수진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전쟁 동원을 위한 인력 양성이라는 당시 총독부의 교육 방침 때문이었다. 그러나 1938년 이후 입학생 비율은 계속 감소하였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함께 단축 수업이 실시되면서 수물과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다.⁷⁹⁾ 결국 1944년 5월 연희전문학교는 적산으로 처리되면서 총독부에 의해 몰수, 폐교 당하게 되었다.⁸⁰⁾

설립될 당시부터 폐교가 확정될 때까지 연희전문학교의 수물과의 설치와 교육

77) *Chosen Christian College Report of the Dean* (1938), p.1.

78) 손인수, 앞의 책, 241-248쪽.

79)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54-256쪽.

80) 나일성, 앞의 책, 182-185쪽.

과정의 결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시기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다루었다. 우선 1915년부터 1917년까지 선교사들이 기독교계 대학을 조선에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등 수준의 과학 교육과 종교 교육을 배제시키려는 조선총독부와 마찰을 빚은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교육 방침에 맞지 않는 수물과가 설치될 수 있었던 까닭은 종교 교육 여부를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계 학교의 특성 때문이었다. 당초 연희전문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선교사들은 과학 교사로서 과학 교육에 대한 의지와 조선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수물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들에게 종교 교육의 불가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전략 중 하나가 과학 교육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학교 설립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이후인 1918년부터 1926년까지는 실제 학교 운영이 시작되면서 조선인 학생들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이들은 연희전문학교의 파행적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아가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에 불만을 품으면서 다양한 단체 활동을 벌어나갔으며 당시의 민족주의적 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에 조선총독부 측은 연희전문학교를 포함한 기독교계 사학을 민족주의 운동의 온상으로 파악하고 겉으로는 일선 공학을 표방하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관학·사학 위계 설정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기독교계 사학에 대한 규제를 유지시켜 나갔다. 결국 연희전문학교 교수진들은 학생들과 함께 학교 운영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 과정 개정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하는 동시에 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교육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등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1927년 연희전문학교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재인가를 받는 데에 성공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안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단계적 협의를 통해 조선총독부로부터 졸업생 자격의 획득을 꾀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수물과 교육 과정의 개선을 통해 과학 교육의 내실화를 꾀했던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학·사학의 위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조선인들의 향학열을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었으며 결국 연희전문학교 졸업생들의 학력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한편 1935년의 교육 과정 개정과 그로 인한 조선인 학생들의 선택 과목 결정은 당시 조선 사회

의 산업 상황과 그들의 현실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비록 수물과 교수진들이 먼저 제안했던 선택 교육 과정이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 진출에 유리한 기술 교육 과정을 선택하면서 이 시기 수물과의 과학 교육은 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연희전문학교 수물과는 식민지시기 동안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폭넓은 과학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조선인 과학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데에 기여했다. 물론 식민지 과학 교육의 역사에서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의의는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교육 내용의 특성은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료, 서양인 선교사, 조선인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에 따라 형성된 것이었으며 이들은 수물과를 통해 각기 다른 교육 체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수물과의 교육 과정을 ‘동화’를 위한 식민지 교육 체계 속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설립 초기 선교사들은 조선 사회의 ‘복음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기독교 교육 체계 속에 수물과를 위치시켰고, 조선인 학생들은 ‘사회 참여’를 위한 조선 본위교육의 공간으로써 수물과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논문 투고일: 2010년 4월 17일

논문 수정일: 2010년 6월 2일

게재 확정일: 2010년 6월 12일

<ABSTRACT>

Plans for Science Education in Colonial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Science Department of Chosen Christian College

JEON Chanmi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sen Christian College [延禧專門學校], established in 1914 by protestant missionaries and approved in 1917 by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had plans for setting up a science department[數學及物理科] with the objectives of teaching pure science. However, the plans for science education underwent several alterations following the founding of the schoo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he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y and the Korean students had a critical effect on process of change.

Focusing on these three actor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iculum for science education in the science department through three phases. During the first phase (1912-1917), education in the science department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educational visions of the American missionary, rather than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During the second phase, when the school was stagnant (1918-1926), due to activist movements of Korean students demanding normalization of education,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ook action by altering the educational policy. During the last phase(1927-1928), the science department of Chosen Christian College took charge of cultivating Korea's elit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Keywords: Science department, Chosen Christian College, Colonial science education, Colonial religious policy, *Chosun Education Ordinance* [朝鮮教育令], Student movement